
일반논문

www.kci.go.kr

『논형』(論衡)의 「골상편」(骨相篇)에 나타난 명(命)과 성(性)의 연구

김 우 정*

[초 록]

왕충(王充)은 『논형』에서 부귀빈천을 주관하는 명(命)은 하늘의 기운과 여러 별들의 정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명(命)은 개인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명(命)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왕충은 사람의 행실을 결정하는 성(性)을 개인의 노력과 교육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왕충은 교육을 통해서 악(惡)한 사람을 선(善)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왕충은 「골상편」에서 명(命)과 성(性)이 동시에 골상에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명(命)과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성(性)이 동일한 관점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

*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강사

주제어: 왕충(王充), 논형(論衡), 골상(骨相), 부귀빈천(富貴貧賤), 선악(善惡), 천명(天命), 본성(本性)

Wangchong (王充), Lunheng (論衡), Guxiang (骨相), Riches and Honors or Poverty and Lowliness (富貴貧賤), Good and Evil (善惡), Tianming (天命), Benxing (本性)

다. 즉 명(命)이 바꿀 수 없으면 성(性)도 바꿀 수 없거나 성(性)을 바꿀 수 있으며 명(命)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왕충이 「골상편」에서 명(命)과 성(性)이 동시에 골상에 나타난다고 주장한 것은 명(命)과 같이 성(性)도 바꿀 수 없다는 전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솔성편」(率性篇)에서 성(性)은 교육과 교화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두 곳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왕충은 명(命)과 성(性)에 대해서 스스로 모순되는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충은 性의 개념을 단순히 善惡을 지닌 측면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수명과 관련된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골상편」에 나타난 性의 개념은 수명과 관련된 性의 개념과 동일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서론

『논형』(論衡)¹⁾은 후한시대 왕충(王充)²⁾이 저술한 책이다. 왕충은 『논형』을 통해서 후한시대에 유행하던 학문적 사상이나 사회적 모순을 비

1) 박정윤(2009), 「王充의 命定論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p. 10. “『논형』은 학자들에 따라서 저술시기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왕충이 일생에 걸쳐 저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실상 이 책 전체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문장의 표현이나 기술방식이 중복된 부분이 많고 통일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2) 박정윤(2009), pp. 10-15 참조. 왕충은 회계군 상우현 출신이며 光武 建武(A.D. 25-56) 3년(A.D. 27)경에 출생하여 和帝 8년(A.D. 96)까지 대략 70세 전후를 살았다. 왕충은 『論衡』 85편 이외에도 『譏俗節義』 12편과 『政務』, 말년에는 『養性』 16편을 지었다고 하지만 전하지 않는다. 왕충은 평생 미관말직에 종사했으며 집안에도 특별히 벼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생동안 매우 빈곤하게 살았다. 『後漢書』 「王充傳」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는 집안이 가난하여 책을 살 수 없어 洛陽의 서점을 다니며 책을 열람하기만 했고 말년에는 가난하여 받들어 줄 사람도 없어 심정이 편하지 못할 정도였다.

판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내용을 창안하기보다는 시대적인 흐름의 모순을 지적하는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풍우란은 자신의 저술에서 『논형』은 학문적인 가치가 적다고 비판하고 있다.³⁾ 그러나 논자는 『논형』이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오류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왕충이라는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 당시의 사회적인 모순에 좀 더 예리한 비판의 칼날을 댈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왕충은 자신의 출신이나 사회적인 배경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학문적인 소양을 쌓는데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충은 자신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지녔다고 보여진다.⁴⁾

왕충의 이런 측면은 「자기편」(自紀篇)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충(充)은 세력이 없는 외로운 집안에서 태어났다. ……; 당신의 조상은 어떤 분들인가?, ……⁵⁾

가난하여 한 이랑의 밭도 없고 몸을 덮을 것도 없지만 마음은 왕공보다 편안하고, 비천하여 한 말이나 한 섬의 차례를 갖지 못하지만 생각은 만종(萬鍾)을 먹는 것과 같았다.⁶⁾

3) 풍우란은 『논형』을 비판위주로 작성된 글로 가치가 적은 글이라고 비판한다(풍우란(2003),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하』, 서울: 까치글방, p. 125 참조).

4) 시계자와 도시로(2003), 이혜경 옮김, 『역사 속에 살아있는 중국사상』, 서울: 예문서원, p. 131. “그는 실제로 불합리한 경험을 겪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의 구조를 이와 같이 설명하게 되었다. 자신이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듯 하다.”

5) 黃暉(2017), 『論衡校釋』 下卷, 北京: 中華書局, p. 1399. “充細族孤門, ……; 吾子何祖, ……”

6) 黃暉(2017), p. 1380. “貧無一畝庇身, 志佚於王公, 賤無斗石之秩, 意若食萬鍾.”

이와 같이 당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오류와 모순을 바로잡고자 했다. 그러나 자신이 쓴 『논형』에서 왕충은 「골상편」이라는 편명을 따로 짓고 골상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골상편」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의 부귀빈천은 명(命)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런 명(命)은 사람의 외모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의 부귀빈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왕충이 활동하던 후한시대는 골상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적용되던 시기이다.⁷⁾ 그러므로 비판적인 입장에서 당시의 사회적인 모순이나 학문적인 오류를 지적한 『논형』이라면 당연히 골상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왕충은 오히려 「골상편」을 통해서 사람의 명(命)은 예측이 가능하며 사람의 명(命)은 그 사람의 외모에 드러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왕충은 왜 이런 주장을 한 것일까? 풍우란은 왕충이 생존했던 시기의 학문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⁸⁾ 그리고 「골상편」을 통한 왕충의 주장은 합리주의적이며 비판주의적인 왕충의 사상에서 오점으로 지적된다는 비판을 받는다.⁹⁾ 왕충의 명(命)과 성(性)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이 「골상편」에 나타난 개념을 비판하는 관점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이런 비판의 관점에서 풍우는 숙명론으로 결론을 내리고¹⁰⁾ 풍우란은 미신적인 요소를 지녔다¹¹⁾고 주장한다.

7) 김연희(2008), 「유소 『인물지』의 인재론에 관한 상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p. 99. “兩漢시대의 상학은 이미 일반인들에게 많이 보급되었으며 형상과 기색, 육친의 단계, 五岳의 개념, 音聲, 顛, 肩의 상법까지 형성되어 진전을 가져왔다.”

8) 풍우란(2003), p. 143. “왕충은 음양가의 학설을 공격하기는 했지만 또한 符瑞의 설을 주장했다. ……, 실증의 추구에 힘썼던 왕충도 이른바 命을 주장했고 또 부서의 설을 주장했으니, 시대의 영향은 막대하여 특출한 학자라도 벗어나기 힘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왕충의 주장은 한대의 시대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결론짓고 있다.

9) 정환희(2013), 「왕충의 명(命)개념 연구」, 『사회과학교육』 16, 서울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p. 51 참조.

그러나 논자는 “왕충이 사람의 명은 예측이 가능하며 사람의 명은 그 사람의 외모에 드러난다.”는 주장을 통해서 당시에 왕충 개인이 느끼는 학문적 성취와 현실적인 부귀빈천의 간극을 해석하고자 노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논자는 왕충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명(命)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충이 주장하는 명(命)과 성(性)의 관계에 대하여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황국안은 왕충이 “천성은 변할 수 있지만 천명은 바꿀 수 없다.”고 하였으며 “천성과 천명은 다르다.”고 언급한 점들을 근거로 명(命)과 성(性)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¹²⁾ 그리고 서민은 천성과 천명은 모두 기(氣)를 부여받아서 형성된 것이므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¹³⁾

주계전은 황국안이나 서민의 주장과 다르게 명(命)과 성(性)의 관계를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⁴⁾ 그리고 당군은 ‘性與命異’라는 구절을 통해서 성(性)의 선악과 명(命)의 길흉은 범주가 서로 다르며 선악은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고 길흉은 행위의 성과를 의미한다고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¹⁵⁾ 이와

10) 풍우(2008), 김갑수 옮김, 『동양의 자연과 인간이해』, 서울: 논형, p. 134. “왕충의 천명결정론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체계적인 숙명론이다. 그는 ‘명(命)’의 근원과 작용을 설명하였고 아울러 인위적 노력의 무의미함에 대하여 논증하였다. 그는 내용적인 면에서 선진의 점성술과 도가의 무위론을 흡수하였다.”

11) 풍우란(2003), p. 142. “여기서 말한 命(운명·숙명)은 바로 세속에서 말한 명이니 그 안에는 자못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 왕충은 여기서는 세속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12) 黃國安(1975), 『王充思想之形成及其論衡』, 台北: 商務印書館, p. 132 참조.

13) 徐敏(1979), 『王充哲學思想探索』, 新知三聯書店, p. 145 참조.

14) 周桂鈿(1994), 『虛實之辨 — 王充哲學的宗旨』, 河北: 人民出版社, pp. 124-128 참조.

같이 왕충이 설명한 명에 대한 관점과 명과 대비되는 성에 대한 관점을 학자마다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자는 왕충의 명과 성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골상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즉 왕충이 만약 일반적으로 알려진 관상의 이론을 「골상편」에서 차용한 것이라면 「골상편」에 나타난 명과 성의 개념과 왕충이 「골상편」을 제외한 『논형』에서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명(命)과 성(性)의 개념을 비교하면 각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논자는 우선 「골상편」과 「봉우편」(逢遇篇), 「누해편」(累害篇), 「명록편」(命祿篇), 「행우편」(幸偶篇), 「명의편」(命義篇)과 「우회편」(偶會篇) 등에서 주장된 명의 개념을 살펴보고 「골상편」과 「명록편」(命祿篇), 「솔성편」(率性篇), 「초품편」(初稟篇)과 「본성편」(本性篇) 등에서 주장한 성의 개념을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왕충이 주장하는 명(命)과 성(性)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논자는 이런 과정을 통하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왕충이 주장하는 명과 성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골상편」(骨相篇)의 명(命) 개념

왕충은 「골상편」에서 명(命)이란 부귀빈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 부귀의 명(命)을 지닌 연후에 부귀의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¹⁶⁾

15) 唐君毅(1984), 『中國哲學原論』, 台北: 學生書局, pp. 565-566 참조.

16) 黃暉(2017) 上卷, p. 135. “皆富貴之命, 然後乃任富貴之事.”

이런 이유로 명(命)을 아는 사람은 빈천에서 부귀를 보고 부귀에서 빈천을 본다.¹⁷⁾

왕충은 개인의 삶이 부귀한지 빈천한지는 개인의 노력에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귀의 명(命)을 타고난 경우에 한해서 부귀한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타고난 명(命)에 의해서 부귀빈천이 결정되므로 명(命)을 안다면 빈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미리 부귀할 가능성을 알 수 있고 부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앞으로 빈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⁸⁾

왕충은 「골상편」에서 설명한 부귀빈천의 문제를 「봉우편」(逢遇篇)에 서는 시운에 달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행이 항상 현명해도 벼슬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것과 현명하지 못한 것은 재능이요, 벼슬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시운이다. 재주가 높고 행실이 맑아도 필시 존귀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고, 재능이 천박하고 행실이 탁해도 필시 비천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혹시 높은 재주와 맑은 행실을 지녀도 시운을 만나지 못하면 물러나서 하루에 머물고 천박한 재능과 탁한 행실을 지녀도 시운을 만나면 못 사람들의 위에 머문다.¹⁹⁾

왕충은 「골상편」에서 부귀의 명을 지닌 이후에 부귀해질 수 있다고

17) 黃暉(2017), p. 136. “是故知命之人, 見富貴於貧賤, 睹貧賤於富貴.”

18) 이런 왕충의 주장에 대해서 좌등광현(佐藤匡玄)은 사람의 사회적 환경인 부귀빈천을 녹명(祿命)으로 규정하고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사생(死生)의 명(命)으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사생의 명(命)을 다시 수요(壽夭)의 명(命)과 촉치(觸值)의 명(命)으로 구분하고 있다(佐藤匡玄(1733), 『論衡の研究』, 東京: 創文社, p. 114 참조).

19) 黃暉(2017), p. 1. “操行有常賢, 仕宦無常遇. 賢不賢才也, 遇不遇時也. 才高行潔, 不可保以必尊貴. 能薄操濁, 不可保以必卑賤. 或高才潔行, 不遇, 退在下流, 薄能濁操, 遇, 在衆上.”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봉우편」에서는 행실의 청탁과 현명함의 여부는 벼슬을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높은 벼슬을 해서 존귀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재능과 행실과는 무관하며 오직 시운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 개인이 비천해지는 것도 개인의 노력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운수가 나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대저 선비의 행실에는 세 가지累了 있고 벼슬아치의 행실에는 세 가지害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몸을 온전하게 보전하면 결백하다고 말하고 훼손을 당하면 결백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관직에 승진하면 선하다고 말하고 지위에서 물러나면 나쁘다고 말한다. 몸을 온전하게 보전하고 승진한 것은 행운인데 결백하고 선하다고 말하고, 훼손당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시운을 만나지 못한 것인데 결백하지 못하고 나쁘다고 말한다. 마음썸썸이가 이와 같다면 필시 세 가지累了와 세 가지害를 조장할 것이다.²⁰⁾

왕충은 「累害篇」에서 선비로서 몸을 보전하고 관료로서 승진하면 사람들이 결백하다고 평가하고 선하다고 말하며, 선비로서 치욕을 당하고 관료로서 자리에서 물러나면 사람들이 행실이 탁하고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왕충은 한 개인이 선비로서 몸을 온전하게 보전하거나 관료로서 승진하는 것은 단지 요행이며 시운을 잘 만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왕충의 주장에 대해서 풍우는 왕충이 모든 것을 우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사람의 노력을 과소평가하고 신비주의적인 명정론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다.²¹⁾

20) 黃暉(2017), p. 13. “夫不原土之操行有三累, 仕宦有三害, 身完全者, 謂之潔, 被毀謗者, 謂之辱, 官升進者, 謂之善, 位廢退者, 謂之惡. 完全升進幸也, 而稱之, 毀謗廢退不遇也, 而訾之. 用心若此, 必為三累三害也.”

21) 풍우(2008), p. 170. “왕충과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명정론적 견

왕충은 「골상편」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요행과 시운의 만남 여부가 개인의 외모에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개인의 부귀빈천을 결정하는 명(命)이 사람의 외형에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들이 명(命)은 알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명(命)은 매우 알기 쉽다. 무엇을 사용해서 알 수 있는가? 골체(骨體)를 사용해서 알 수 있다. 사람의 명(命)은 하늘에서 부여받으며 몸의 거죽상태에 나타난다.²²⁾

왕충은 각 개인들의 부귀빈천을 결정하는 명(命)이 사람들의 골체(骨體) 즉 외모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명(命)은 하늘에서 부여받으면 각 개인의 몸의 거죽상태에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왕충은 『논형』을 통해서 자신이 활동하던 시대의 사회적 인 모순이나 오류를 비판했지만 골상에 관한 이론에는 반대로 심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골상에 대한 긍정적인 자신의 생각을 「골상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늘에서 기(氣)를 부여받으면 땅에서 형체를 이루니 땅에 머무는 형체를 살피면 하늘에 머문 명(命)을 알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실체를 얻게 된다.²³⁾

해는 바로 반천인감응론적 견해와 연관되어 있다. ……; 그는 허구적 인간관계를 부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는 모든 것은 우연적이고 ‘길흉도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때문에 자연히 인력을 과소평가 하게 되었으며 신비주의적 명정론에 빠졌다. 왜냐하면 우연적인 것을 지나치게 긍정하는 것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필연, 즉 ‘천명’을 승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22) 黃暉(2017), p. 126. “人曰命難知, 命甚易知, 知之何用, 用之骨體, 人命稟於天, 則有表候於體.”

23) 黃暉(2017), p. 143. “稟氣於天, 立形於地, 察在地之形, 以知在天之命, 莫不得其

왕충은 명(命)을 하늘에서 부여한 기(氣)로 이해하고 있으며 하늘에서 부여한 기(氣)가 땅으로 내려오면 형체를 만들고 그 속에 머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늘이 부여한 기(氣)가 만들고 머무는 형체를 살펴보면 반대로 하늘에서 부여한 명(命)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골상을 통해서 명(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왕충이 말하는 골상이란 거죽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거죽상태는 골법(骨法)을 말한다.”²⁴⁾라고 왕충이 주장한다.

골절의 법을 고찰하고 피부의 이치를 살펴서 사람의 성(性)과 명(命)을 밝히면 징험하지 않는 것이 없다.²⁵⁾

왕충은 골법을 골절의 법을 고찰하고 피부의 이치를 살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왕충은 골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명(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왕충은 「골상편」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명(命)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배움을 정밀히 해도 귀(貴)함을 구할 수 없고 귀(貴)함은 저절로 이른다. 힘써서 노력해도 부(富)함을 구할 수 없으니 부(富)함은 스스로 도달한다. 부귀(富貴)의 복(福)은 구하여 이를 수 없고 빈천(貧賤)의 화(禍)는 진실로 제거할 수 없다.²⁶⁾

實也.”

24) 黃暉(2017), p. 126. “表候者骨法之謂也.”

25) 黃暉(2017), p. 136. “案骨節之法, 察皮膚之理, 以審人之性命, 無不應者.”

26) 黃暉(2017), p. 29. “精學不求貴, 貴自至矣. 力作不求富, 富自到矣. 富貴之福, 不可求致. 貧賤之禍, 不可苟除也.”

왕충은 명(命)에 대해서 개인이 아무리 배움을 정밀히 해도 귀(貴)함을 구할 수 없으며 힘써서 노력해도 부(富)함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부귀빈천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개인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왕충은 이런 주장을 통해서 부귀빈천을 결정하는 명(命)이란 개인의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늘은 상(象)을 가지니 부귀의 상을 얻으면 부귀하고 빈천의 상을 얻으면 빈천해진다. 그러므로 하늘에 달렸다고 말하니 하늘에 달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은 백관(百官)을 지니고 못 별들을 지닌다. 하늘은 기(氣)를 베풀고 못 별들은 정(精)을 퍼뜨린다. 하늘이 베푼 기(氣)와 못 별의 기(氣)가 그 가운데에 머문다. 사람은 기(氣)를 품고 태어나며 기(氣)를 머금고 성장한다. 귀(貴)를 얻으면 귀(貴)하고 천(賤)을 얻으면 천(賤)하다. 귀(貴)해도 차례대로 높고 낮음이 있고 부(富)해도 재물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있다. 모두 부여받은 별자리(尊卑)와 대소(大小)를 따른다.²⁷⁾

왕충은 하늘에 부귀의 상(象)이 있고 빈천의 상(象)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각 별들이 퍼뜨린 정기(精氣)를 사람이 부여받음으로써 빈부귀천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왕충의 주장은 개인의 빈부귀천이 하늘의 정기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개인이 노력해서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확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왕충은 개인이 바꿀 수 없는 명(命)을 골상을 통해서 알 수 있

27) 黃暉(2017), pp. 51-53. “天有其象, 得富貴象則富貴, 得貧賤象則貧賤, 故曰在天, 在天如何, 天有百官有衆星, 天施氣而衆星布精, 天所施氣, 衆星之氣在其中矣. 人稟氣而生, 含氣而長, 得貴則貴, 得賤則賤, 貴或秩有高下, 富或賁有多少, 皆星位尊卑小大之所授也.”

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성(性)도 골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골상편」(骨相篇)의 성(性) 개념

왕충은 앞에서 골절의 법을 고찰하고 피부의 이치를 살피면 사람의 성과 명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실도 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귀빈천이 골체(骨體)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조행(操行)의 청탁(淸濁)도 역시 법리(法理)를 갖는다. 귀천빈부가 명이라면 조행의 청탁은 성이다. 명이 골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도 역시 골법을 갖는다. 오직 명이 분명한 상(象)을 지녔음을 알고 있을 뿐 성도 골법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명의 드러난 표적은 보면서도 성의 징표는 보지 못한 것이다.²⁸⁾

왕충은 부귀빈천을 결정하는 명이 골법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의 행실의 청탁도 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명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늘의 정기를 부여받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개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므로 왕충은 결정론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도 「초품편」(初稟篇)에서 성과 명이 함께 부여받고 동시에 얻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28) 黃暉(2017), p. 141. “非徒富貴貧賤有骨體也, 而操行淸濁亦有法理, 貴賤貧富命也, 操行淸濁性也, 非徒命有骨法, 性亦有骨法. 惟知命有明相 莫知性有骨法, 此見命之表證, 不見性之符驗也.”

이와 같다면 본래 하늘에서 명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을 닦고 선을 행함으로써 선행을 하늘에 알렸고 하늘이 제왕의 명을 주었다는 말이다. …… , 만약 실제로 이것을 논한다면 명이 아니다. 명은 처음 부여받아서 태어난 것을 말하니 사람이 태어날 때 성을 받는다는 것은 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성과 명은 모두 부여받는 것으로 동시에 얻는 것이지 먼저 성을 품게 되고 이후에 명을 받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 , 왕이 될 사람이 한번 명을 받으면 안으로 성이 되고 밖으로 몸이 된다. 몸은 얼굴의 골법이며 태어나면서 품게 되는 것이다.²⁹⁾

왕충은 자신이 수양하고 선행을 쌓음으로써 하늘을 감동시켜서 원래 갖지 못한 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명과 함께 선악을 구분하는 성도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 부여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왕충은 길흉을 나타내는 명과 행실의 선악을 나타내는 성은 구분되지만 태어날 때 동시에 부여받는 것이며 성은 안으로 품게 되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얼굴의 골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골상편」에서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왕충은 단순히 길흉을 나타내는 명과 행실의 선악을 나타내는 성이 동일하게 한번 결정되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초품편」에서는 명과 성이 동시에 부여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솔성편」(率性篇)에서는 명과 다르게 성은 인위적인 노력과 교화를 통해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9) 黃暉(2017), pp. 147-149. “若此者，謂本無命於天，脩己行善，善行聞天，天乃授以帝王之命也，……，如實論之非命也。命謂初所稟得而生也，人生受性則受命矣，性命俱稟，同時並得，非先稟性，後乃受命也。何以明之，……，王者一受命，內以爲性，外以爲體，體者面輔骨法，生而稟之。”

사람의 성(性)을 논하면 선(善)을 가진 자가 있고 악(惡)을 가진 자가 있다. 선(善)한 자는 진실로 스스로 선하며 악(惡)한 자는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이끌어주고 힘쓰게 하면 선하게 할 수 있다.³⁰⁾

왕충은 사람의 성을 논하면서 선을 가진 사람은 자연히 선하므로 문제가 없고 악한 사람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면서 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왕충이 명과 성을 다르게 바라봄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왕충의 주장대로 성을 이해한다면 성은 명과 다르게 후천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왕충의 주장에 대해서 논자는 왕충이 성삼품설에 의해서 인성을 세 등분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³¹⁾

실제로는 사람의 성이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것이다. 마치 사람의 재주가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는 것과 같아. 높은 자는 낮출 수 없고 낮은 자는 높일 수 없다. 성이 선악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재주가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부여받은 성과 命은 동일하다는 것이 실제이다. 命은 貴賤을 갖고 성은 善惡을 갖는다. 성이 善惡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命이 貴賤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³²⁾

30) 黃暉(2017), p. 78. “論人之性, 定有善有惡. 其善者, 固自善矣, 其惡者故, 可教告率勉, 使之為善.”

31) 한대에 비교적 유행했던 인성론의 관점은 성삼품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樊浩(1992), 『中國倫理精神的歷史建構』,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p. 249 참조), 왕충의 인성론 역시 ‘중인이상’·‘중인’·‘중인이하’의 세 종류로 구분하고 이러한 분류 관념에 따라서 선진시기 이전의 각종 인성론을 비판했다(陳拱(1996), 『王充思想評論』, 臺北: 臺北商務書館, pp. 160-161 참조).

32) 黃暉(2017), p. 168. “實者人性有善有惡, 猶人才有高有下也. 高不可下, 下不可高, 謂性無善惡, 是謂人才無高下也, 稟性受命同一實也. 命有貴賤, 性有善惡, 謂性無善惡, 是謂人命無貴賤也.”

왕충은 사람의 성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재주가 높은 사람과 재주가 낮은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차이로 인해서 명이 귀천을 갖듯이 성도 선악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왕충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차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았다.

나는 진실로 맹자가 말한 성이 선한 자는 중인 이상의 사람이라고 여기며, 손경이 말한 성이 악한 자는 중인 이하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양옹이 말한 성의 선악이 혼잡된 자는 중인이라고 여긴다. 만약 상도(常道)를 어기고 의리(義理)에 부합시킨다면 가르침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성을 궁구(窮究)하는 이치가 되지 않는 것이다.³³⁾

왕충은 성삼품설의 관점에서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性善說)에 대해서는 중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장이라고 설명했으며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性惡說)에 대해서는 중인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양옹이 주장한 성악혼재설(性惡混在說)에 대해서는 바로 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설명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왕충은 교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중인만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고자가 물질을 트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한낱 중인을 말한 것이며 지극히 선하거나 지극히 악한 사람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 공자가 “性은 서로 가깝지만 배움에 따라서 매우 멀어질 수 있다.”고 말씀 하셨으니, 대저 중인의 性은 배운 것을 따른다. 선함을 배우면 선하게 되고 악함을 배우면 악하게 된다. 지극히 선하거나 지극히 악함에 이르면 다시 배워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자가 “오직 최

33) 黃暉(2017), p. 169. “余固以孟軻言人性善者, 中人以上者也, 孫卿言人性惡者, 中人以下者也, 揚雄言人性善惡混者, 中人也. 若反經合道, 則可以爲教, 盡性之理, 則未也.”

고의 지혜와 죄하의 어리석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다.³⁴⁾

사람의 본성을 물길에 비유한 고자의 주장을 예로 들고 공자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교화의 대상은 결국 중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왕충은 「본성편」에서 이전 시대의 학자들이 주장한 본성에 대한 견해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이론들을 상황에 맞춰서 사용한다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이런 이론들만으로는 본성에 대한 지극한 이치를 밝힐 수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왕충은 이미 앞에서 하늘의 정기로 인해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명(命)과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성(性)이 모두 골상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왕충은 성에 나타나는 행실의 청탁을 말하면서 악하게 타고난 자를 교육과 교화로 선하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충의 두 주장만 살펴보면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논자는 왕충이 주장하는 명과 성의 관계를 「골상편」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4. 「골상편」(骨相篇)의 명(命)과 성(性)의 관계

왕충은 「골상편」을 통해서 명(命)과 성(性)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왕충은 명(命)에 대해서 「골상편」 이외에도 「봉우편」(逢遇篇), 「누해편」(累害篇), 「명록편」(命祿篇), 「행우편」(幸偶篇), 「명의편」(命義篇)과 「우회편」(偶會篇) 등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명(命)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34) 黃暉(2017), pp. 162-163. “告子之以決水喻者, 徒謂中人, 不指極善極惡也. 孔子曰性相近也, 習相遠也. 夫中人之性, 在所習焉, 習善而爲善, 習惡而爲惡也. 至於極善極惡, 非復在習, 故孔子曰, 惟上智與下愚不移.”

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성(性)에 대해서도 「명록편」(命祿篇), 「솔성편」(率性篇), 「초품편」(初稟篇)과 「본성편」(本性篇) 등에서 왕충이 스스로 정리한 성(性)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왕충은 『논형』 전체에 자신이 생각하는 명(命)과 성(性)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각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설명하면서도 산만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서 논자는 「골상편」이라는 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왕충이 주장한 명(命)과 성(性)의 개념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명(命)을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성(性)은 개인의 노력이나 교화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왕충은 「골상편」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명과 교육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성을 골법이라는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골상편」을 중심으로 왕충이 주장한 내용만을 살펴보면 명과 성은 동일하게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성에 관해서도 명처럼 타고난 것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충은 「솔성편」의 첫 구절에서 악한 사람을 교화하여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솔성편」에 나타난 왕충의 주장을 「골상편」과 비교해보면 성에 관한 왕충의 주장이 논리적인 모순에 빠졌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왕충은 성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하가 “사생(死生)은 명(命)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사생(死生)은 하늘에 달렸고 부귀는 명(命)에 달렸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생(死生)이란 하늘에 상(象)을 갖지 않고 성(性)을 주인으로 삼는다. 견고하고 강한 성(性)을 품으면 기(氣)가 두터워서 몸도 견고하고 강하다. 몸이 견고하고 강하면

수명도 장수한다. 수명이 길면 일찍 죽지 않는다. 품성(稟性)이 연약하면 기(氣)가 소박하고 성(체력)이 부족하다. 성(체력)이 부족하면 수명이 짧다. 수명이 짧으면 일찍 죽는다. 그러므로 명(命)에 달렸다고 말하니 수명이 성(性)이다.³⁵⁾

왕충은 “사생(死生)은 명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는 자하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하가 말한 명은 수명을 가리킨다고 규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지 않고 성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왕충은 수명을 주관하는 성이 견고하고 강하면 장수하고 연약하면 단명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황휘는 왕충이 주장하는 성은 체력(體)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수편」(氣壽篇)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왕충이 제시한 성은 몸이나 체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은 당연히 ‘체력’이다. “기가 얇으면 체력이 약하다”라는 문장은 위의 “기가 두터우면 체력이 견고하고 강하다.”라는 문장과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문장이다. 「기수편」에도 “대저 품은 기가 두터우면 몸이 강하고 몸이 강하면 그 수명이 길다. 기가 얇으면 몸이 약하고 몸이 약하면 수명이 짧다. 수명이 짧으면 대부분 병에 걸리고 목숨이 짧다.”라는 문장이 정확하게 같으므로 이 주장의 근거가 된다.³⁶⁾

35) 黃暉(2017), p. 51. “子夏曰死生有命富貴在天 而不曰死生在天富貴有命者, 何則, 死生者, 無象在天, 以性為主. 稟得堅彊之性, 則氣渥厚 而體堅彊, 堅彊則壽命長壽, 命長則不夭死. 稟性軟弱者, 氣少泊而性(體)羸廡, 羸廡則壽命短, 短則蚤死, 故言有命 命則性也.”

36) 黃暉(2017), p. 51. “‘性’當作‘體’. ‘氣少泊而性羸廡’, 與上‘氣渥厚而體堅彊’正反爲文. 氣壽篇, ‘稟氣渥則其體彊, 體彊則其命長, 氣薄則其體弱, 體弱則命短, 命短則多病壽短’, 文意正同, 是其證.”

황휘의 주장에 따른다고 해도 성을 단순히 몸이나 체력으로만 볼 수는 없다. “사생(死生)이란 하늘에 상(象)을 갖지 않고 성(性)을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나 체력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왕충은 부귀를 결정하는 명처럼 수명을 결정하는 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두 구절은 체력이나 몸으로 볼 수 있지만 “사생(死生)이란 하늘에 상(象)을 갖지 않고 성(性)을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구절은 성이라는 개념을 체력이나 몸과는 다른 것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왕충이 설명한 성이 결국 수명을 결정하는 성이 된다. 그럼 수명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장수와 요절의 상(相)을 지녔으며 역시 빈부귀천의 법도 지녔다. 모두 몸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수명의 길고 짧음도 모두 하늘에서 부여받고 골법의 선악도 모두 몸에서 드러난다.³⁷⁾

왕충은 수명의 길고 짧음을 모두 하늘에서 부여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수명의 길고 짧음이 골상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사생(死生)이란 하늘에 상(象)을 갖지 않고 성(性)을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인용문과 “수명의 길고 짧음도 모두 하늘에서 부여받고 골법의 선악도 모두 몸에서 드러난다.”의 인용문을 종합하면 수명을 주관하는 것은 성(性)인데 수명은 하늘에서 부여받는 것이며 하늘에서 부여받은 성(性)은 골상에서 드러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즉 왕충은 장수와 요절에 대한 측면에서 성(性)이 명(命)과 동일하게 하늘에서 부여받은 기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수편」에서는 수명과 관련해서 명과 성의 구분을 하지 않고 모두

37) 黃暉(2017), p. 50. “人有壽夭之相, 亦有貧富貴賤之法, 俱見於體, 故壽命脩短, 皆稟於天, 骨法善惡, 皆見於體.”

명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저 사람이 부여받은 命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당면하여 접촉하는 命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強弱의 壽夭하는 命이라고 부른다.³⁸⁾

왕충은 사람이 오래 살거나 빨리 죽는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로 병기에 죽거나 불에 타죽거나 흠에 깔려죽거나 물에 빠져죽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고난 체질의 강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충에 의하면 사람이 오래 살거나 빨리 죽는 것은 타고난 체질을 전제로 해서 중간에 사건이나 사고를 겪는가의 여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중에 타고난 체질이 앞에서 살펴본 성의 개념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 다만 「기수편」에서는 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명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함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구분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수명의 문제도 왕충은 「기수편」에서 명으로 다루고 「명의편」에서는 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술성편」과 「본성편」에서 설명한 성의 개념은 행실의 선악의 개념을 통해서 교화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앞에서 설명한 수명을 결정하는 성의 개념과는 또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명의 장단을 주관하는 성(性)과 「골상편」에서 설명한 성(性)이 동일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골상편」에서 왕충이 주장하는 명(命)과 성(性)은 동일하게 하늘의 정기를 통해서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며 이렇게 부여된 정기(精氣)는 개인의 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바뀔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8) 黃暉(2017), p. 31. “凡人稟命有二品, 一曰所當觸值之命, 二曰強弱壽夭之命.”

5. 결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타고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높은 지위와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다.

왕충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부(富)를 성취한 부류에 속하지 못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학문적인 성취는 높이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논자는 왕충이 이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골상편」이다. 왕충은 『논형』의 전체를 통해서 명(命)과 성(性)에 대해 논의했지만 특히 「골상편」을 살펴보면 부귀빈천에 대한 운명적인 관점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술성편」과 「본성편」에서는 자신만의 논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선악은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성(性)에 대한 관점이 명(命)과 성(性)에 대한 모순을 초래했다고 비판을 받는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왕충은 성의 개념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길흉을 바꿀 수 없는 명과 동일하게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성의 개념을 「골상편」에서 사용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명과 다르게 개인의 노력이나 교육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성의 개념을 「술성편」과 「본성편」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논자는 왕충이 극복할 수 없는 명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수양과 노력에 의해서 타고난 본성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노력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다만 왕충이 주장하는 성의 개념은 『논형』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호 모순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

으며 이로 인해서 완벽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비판³⁹⁾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39) 조원일(2016), 「왕충의 인성론 연구」, 『동서철학연구』 82, 한국동서철학회, p. 16. “왕충이 인성론에 대하여 진행한 비판과 논의의 초점은 이론적으로 상세한 인성론을 수립하는데 있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던 것으로 사회의 기존가치를 비판하기 위해서 부득불 사회적 가치의 핵심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갔던 것이다.”

참고문헌

【논 저】

- 唐君毅(1984), 『中國哲學原論』,台北: 學生書局.
樊浩(1992), 『中國倫理精神的歷史建構』,南京: 江蘇人民出版社.
徐敏(1979), 『王充哲學思想探索』,新知三聯書店.
周桂鈿(1994), 『虛實之辨 — 王充哲學的宗旨』,河北: 人民出版社.
佐藤匡玄(1733), 『論衡の研究』,東京: 創文社.
陳拱(1996), 『王充思想評論』,臺北: 臺北商務書館.
黃國安(1975), 『王充思想之形成及其論衡』,台北: 商務印書館.
黃暉(2017), 『論衡校釋』 3卷,北京: 中華書局.
김연희(2008), 「유소 『인물지』의 인재론에 관한 상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박정운(2009), 「王充의 命定論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시계자와 도시로(2003), 이해경 옮김, 『역사 속에 살아있는 중국사상』, 서울: 예문서원.
왕충(1987), 이주행 역, 『논형』, 서울: 소나무.
조원일(2016), 「왕충의 인성론 연구」, 『동서철학연구』 82, 한국동서철학회.
정환희(2013), 「왕충의 명(命)개념 연구」, 『사회과학교육』 16, 서울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풍우(2008), 김갑수 옮김, 『동양의 자연과 인간이해』, 서울: 논형.
풍우란(2003),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하』, 서울: 까치글방.

원고 접수일: 2019년 3월 21일

심사 완료일: 2019년 4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9일

ABSTRACT

A Study on the Benxing (本性) and Tianming (天命)
of Guxiang (骨相篇) in *Lunheng* (論衡)

Kim, Woojung*

Wangchong (王充) claimed that Tianming (天命), which is responsible for riches and honors or poverty and lowliness (富貴貧賤), was determined by the energy of the sky and the energy of the various stars in *Lunheng* (論衡). Asserting that these Tianming (天命) are given differently to individuals, Wangchong (王充) argued that Tianming (天命) given from sky cannot be overcome by individual efforts. However, Wangchong (王充) insisted that Benxing (本性), which determines the good and the bad (善惡) of the individuals, can be changed by individual effort and education. In other words, he argued that education could turn a bad person into a good person. Wangchong (王充) claimed that Tianming (天命) and Benxing (本性) show up on Guxiang (骨相) at the same time. But this argument means that Tianming (天命), granted from sky, and Benxing (本性), which can be changed by the efforts of individuals, should have the same perspective. If the Tianming (天命) cannot be changed, neither should Benxing (本性) be able to be changed.

* Lecturer, Graduate School of Oriental Studies, Wonkwang University